

## 소방공무원이 지각한 외상경험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대한 차이 비교 연구

이 서 빈\* · 변 상 해\*\*

### *A Study on Differences of the Effects of Firefighter's Traumatic Experiences on Their Burnout,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Relationships*

Lee Seobin · Byun Sanghea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irefighter's traumatic experiences and to examin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of how those factors contribute to firefighter's burnout,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erative for firefighters to have mindfulness, which brings mental and emotional healing, for their job-satisfaction.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firefight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for two weeks; from October 19th to November 3rd, 2017. Out of 180 questionnaires, 170 were retrieved. Total number of 160 questionnaires are empirically examined this study, excluding 10 bad survey responses.

The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by gender among traumatic experienced firefighters, and a meaningful difference was found from perceived intrusiveness, a sub factor to traumatic experiences. Male firefighters showed higher mean than that of female firefighters in perceived angle, evasion and intrusiveness. Second, the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by gender in firefighter's burnout, but no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Female firefighters showed higher mean in emotional exhaustion, impersonalization and in decrease in self-achievements. Third, the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by gender in firefighter's depression and relationships, but no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Key Words** : Fire-Fighters, Industry-Related Labor Experiences, Job Burnout, Depression, Anxiety, Human Relationships

## I. 서론

자연에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산사태 관련 자연 재해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 의한 재난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수료(주저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교신저자)

이다[1]. 또한 최근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여러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물질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재해발생이 나타나고 있다[2]. 따라서 재해사건이 발생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3]의 보고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재해 및 재난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와 구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타박재법[4]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및 구조 그리고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재해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재난과 재해 사고에 대한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응급상황에 반복적으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5]. 또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그리고 자신이 재난과 재해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방공무원의 육체적·신체적 고통은 이로 말하기가 힘들다[6].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심각한 외상경험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재해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과 사회안전망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으로 새로운 소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외상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인과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 행동대처, 해리, 증상에 관련 외상경험을 사회복지상담학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으로부터 오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차이 비교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치유가 될 수 있는 마음챙김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화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상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고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개인 심리적 특성, 사회적 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서적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상담학적 접근으로서의 연구는 필요하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소방공무원

소방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소방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로 규정하고 있다[7]. 국내의 소방행정조직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소방체제에서 국가소방체제와 자치소방체제로 이원적 운영을 하다가 1992년 1월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방법 제3조 소방사무의 책임을 시·도로 전환하였으며, 시·도의 소방본부 전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게 되었다[8].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9]. 소방공무원의 업무영역은 소방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10].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일반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은 임용과 신분보장, 복무, 징계 퇴직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을 구조하고 구급 활동하는 특수 직업이며, 육체적·심리적 손상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2.2 외상경험

외상이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Random House[13]에 따르면 외상(trauma)이란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는 공격적 행위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상처나 충격을 의미

하며, 둘째로는 심리적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불안 장애의 한 범주에 속하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으로 외상의 재경험이나 각성의 증가, 회피행동 등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2.3 직무소진

소진(Burnout)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서적, 신체적 탈진이며 소진으로 개인의 장기화된 감정적 요구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14]. 양춘희 외[15]의 연구에 따르면 소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직무의 과부하, 과도한 직무 요구, 직무환경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축적을 통해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가 한시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결과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소진이란 스트레스 반응의 한 유형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장기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16]. 그리고 오정학·육풍림[17]의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이란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와 좌절이 축적되어 결국 직무수행의 근원들이 말라버린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Sand & Miyazaki[1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특수한 형태이나, 스트레스는 일상적이며, 부정적·긍정적 기능을 함께 포함하지만 직무소진은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소진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chaufeli & Bakker[19]의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은 정신적·육체적 고갈(exhaustion), 이탈(disengagement)을 의미한다. Cherniss[20]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불만족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업무로부터의 정신적인 물러남을 직무소진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소진은 번아웃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하며, 최근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증상이다[16]. 한국재난정보학회[21]의 연구에 따르면 소진과 관련된 변수로는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으로 알려졌다.

## 2.4 우울

정영심[22]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감정이 슬픔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상태에서부터 지속적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미국정신질환협회에서 분류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DSM-IV에 따르면, 우울은 주요 정서장애의 하나로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 의기소침, 신체적 고통, 우울, 사소한 일에 대한 과민반응, 취미에 대한 흥미 감소,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무가치함과 죄책감, 에너지 저하와 피곤, 불면증, 생각과 집중 결정능력의 저하, 죽음·자살에 관한 생각과 시도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전은영[23]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지역사회와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의 하나로서 이환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흔한 질환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Beck[24]의 연

구에 따른 우울(despression)이란 지각, 인지, 태도, 판단, 기억, 사고 등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흔한 정서이다. 그리고 배점모[25]의 연구에서는 우울이란 신체, 기분 및 사고와 관련된 병으로서 사람이 먹고 잠을 자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 그리고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우울 증상은 주의집중의 곤란, 기억력 및 판단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흥미가 감소하고, 슬픔이나 공허함,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 증상과 함께 대인관계의 위축 등을 나타낸다[26]. 이전부터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장 높은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27]. 또한 우울 기분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분 상태로 인한 의욕과 흥미의 상실, 입맛 감소, 활동량 감소 등의 우울 증상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인지왜곡을 갖게 된다[28].

## 2.5 불안

사전적 의미에서 불안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편하지 아니한 정서적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불안을 뜻하는 영어 단어 ‘anxiety’가 어원적으로 ‘곤경’, ‘좁음’, ‘숨기쁨’의 뜻을 지닌 라틴어 명사 ‘angustiae’와 ‘불안하게 하다’, ‘마음을 죄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angere’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29].

불안이란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정서적인 감정 반응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몸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걱정스러우며 조마조마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 나타나며 이러한 불안 반응은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30]. 이옥주 [31]의 연구에서는 불안이란 보편적인 심리현상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로, 신경증적 혼란 상태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 없이 갖는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긴장 등으로 정의되며 특정 수준 이상의 불안은 업무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 하였다.

## 2.6 대인관계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으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발달을 해나가는 존재이다[32]. 대인관계와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인간관계는 서로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조직과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대인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1대1 관계에 중점을 둔다[33].

대인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야기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34],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 지향성으로 소수인,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35]. 김명화[36]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계속적인 상호 작용의 복합적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Heider[37]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소수 즉,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했으며,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고 지각하는가,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 양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Leary[38]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대인행동을 상징적이거나 윤리적이며, 명백하고 의식적인 것과 관련된 타인과의 행동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39].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외상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름간 조사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180부를 배포하여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10부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0부를 이용하여 실증검증 하였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해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외상경험이 직무소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은경 외[40]의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 관련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소진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삼[41]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노출되고 격무에 시달리는 외근형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선현장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경험과 우울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경[42]의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반추 양식과 외상후 성장,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적 사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반추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영외[43]의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병사들이 복무 중 경험한 외상 사건 유형과 PTSD 증상,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 유형 중 단순외상보다는 복합외상 경험이 PTSD 증상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덕·박재범[4]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우울,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수준을 알아보고, 우울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증상은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경험과 불안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은영·하은혜[4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외상적 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를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고가 대인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강민지·김광웅[45]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외상경험에 의해 유발되거나 유지되는 청소년의 사회불안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유나[4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 정서적외상경험이 많수록 대학생의 불안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정·장희순[47]의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외상의 유형에 따라 초기부적응도식 및 대인관계문제에 차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 경험의 유형에 따라 초기부적응도식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향·조영아[4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경·정남운[4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체계손상이 매개하는지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간 외상경험은 자기체계손상과 대인 관계문제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외상경험, 직무소진,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연구결과

### 4.1 표본의 특성

####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158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3	96.8
	여	5	3.2
교육수준	고졸	33	20.9
	전문대졸	48	30.4
	대학교졸	76	48.1
	대학원 졸업	1	0.6
결혼여부	미혼	35	22.2
	기혼	123	77.8
근무경력	2년 미만	12	7.6
	2-5년	17	10.8
	6-10년	27	17.1
	11-15년	32	20.3
	15년 이상	70	44.3
근무처	행정	37	23.4
	화재진압	67	42.4
	구조대	14	8.9
	구급대	26	16.5
	상황실	2	1.3
	운전	12	7.6
지위	소방령	3	1.9
	소방경	9	5.7
	소방위	45	28.5
	소방장	43	27.2
	소방교	32	20.3
	소방사	26	16.5
근무형태	격일제	10	6.3
	일근	40	25.3
	교대	108	68.4
계		158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53명(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명(3.2%)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졸이 76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48명(30.4%), 고졸 33명(20.9%), 대학원 졸업 1명(0.6%)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23명(7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이 35명(22.2%)이었다.

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이 7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11-15년 32명(20.3%), 6-10년 27명(17.1%), 2-5년 17명(10.8%), 2년 미만이 12명(7.6%) 순이었다. 근무처는 화재진압이 67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이 37명(23.4%), 구급대가 26명(16.5%), 구조대가 14명(8.9%), 운전이 12명(7.6%), 상황실이 2명(1.3%) 순이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p&lt;.05, \*\*p&lt;.01, \*\*\*p&lt;.001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T/P
지각된 과각	남	153	1.2505	.25300	1.529	1.320 / .189
	여	5	1.1000	.14907		
	합계	158	1.2458	.25146		
지각된 회피	남	153	1.2471	.24790	3.195	.421 / .674
	여	5	1.2000	.14142		
	합계	158	1.2456	.24510		
지각된 침습	남	153	1.4915	.35540	2.235	2.322 / .022*
	여	5	1.1200	.17889		
	합계	158	1.4797	.35687		

〈표 3〉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 차이

\*p&lt;.05, \*\*p&lt;.01, \*\*\*p&lt;.001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T/P
정서고갈	남	153	2.3556	1.03345	.151	-.682 / .496
	여	5	2.6800	1.46014		
	합계	158	2.3658	1.04478		
비인격화	남	153	1.9444	.91102	.065	-1.333 / .184
	여	5	2.5000	1.11803		
	합계	158	1.9620	.91918		
자아성취감 감소	남	153	3.4809	.85145	1.264	-.831 / .407
	여	5	3.8000	.54022		
	합계	158	3.4910	.84407		

지위는 소방위 45명(28.5%), 소방장 43명(27.2%), 소방교 32명(20.3%), 소방사 26명(16.5%), 소방경 9명(5.7%), 소방령 3명(1.9%)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교대가 10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일근이 40명(25.3%), 격일제가 10명(6.3%) 순으로 나타났다.

#### 4.1.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지각된 침습( $t=2.322$ ,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과각, 지각된 회피, 지각된 침습 전체에



〈표 4〉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

\*p&lt;.05, \*\*p&lt;.01, \*\*\*p&lt;.001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T/P
우울	남	153	1.8770	.79706	4.224	-.753 / .492
	여	5	2.3625	1.43369		
	합계	158	1.8924	.82140		
불안	남	153	2.8775	.35150	0.235	.249 / .804
	여	5	2.8375	.41127		
	합계	158	2.8762	.35211		
대인관계	남	153	3.8824	.78966	.001	-.049 / .961
	여	5	3.9000	.81562		
	합계	158	3.8829	.78782		

서 남성의 소방공무원 외상경험이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4.1.3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소진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감소 전체에서 여성의 소방공무원 직무소진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 4.1.4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대인관계 전체에서 남성의 소방공무원 증상진단, 대인관계가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고, 불안 전체에서는 여성의 소방공무원 상태불안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 V. 결론 및 시사점

###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 우울,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 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위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외상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직

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론적 시사점은 최근까지 진행된 소방공무원의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외상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인과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 행동대처, 해리, 증상에 관련 외상경험을 사회복지상담학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만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예측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소방공무원이 정서적으로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상담학적 접근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음챙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연구 표본의 일반화와 측정도구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연구의 표본이 일반화가 가능할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t검정(차이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샘플이 차이가 있다. 이는 남자는 153개 이고 여자는 5개뿐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제약이 있다. 셋째, 성별에 차이분다는 직급(근무연수) 또는 근무처를 2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상경험, 우울, 불안, 대인관계는 근무처와 근무연수에 영향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감정에 대한 다각도적인 설문 문항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방공무원도 직무마다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 대상을 선정한 후 다양한 직무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t검정(차이검정)을 실시할 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균형있게 설문을 받아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외상경험, 우울, 불안, 대인관계는 근무처와 근무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1] 신화영, 황순택, 신용태,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 증상의 관계 : D 유형 성격과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6호, 2015, pp. 97-120.
- [2] 이창원, “지방화시대 소방인력관리 개선방안 : 소방인력증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19 Magazine, 통권185호, 2005, pp. 104-112.
- [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Provision for Safety Supervision of the Fire Services A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
- [4] 조선덕, 박재범,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련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제5호, 2013, pp. 219-224.
- [5] 백미례,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9권, 제3호, pp. 59-65.
- [6] 문태영, “소방공무원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2013, pp. 3815-3823.
- [7] 현성호, “위험유발 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스트레

- 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서울 및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8] 김윤정,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외상후 스트레스,"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9] 김경식,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0] 용천중, "소방공무원의 직업병에 관한 연구 : 뇌 심혈관계 질환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11] 이주희, "비 화재 밀폐 공간 구조 활동 시 소방공무원의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2] 박은아, 김성혜, "대학생의 대인외상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외상 후 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학연구, 제6권, 제2호, 2017, pp. 133-155.
- [13] Random House, "Random House Dictionary," 1995.
- [14] A. Pines and E. Aronson, "Career Burnout : Causes and Cures," The Free Press, New York, 1988.
- [15] 양춘희, 권용만, 신형재,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소진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8권, 제4호, 2015, pp.129-151.
- [16] 김성환, "근무형태별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4호, 2015.
- [17] 오정학, 육풍림, "카지노종사원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직무요구-자원(JDR) 모형과 안전환류가설(FFH)의 관점에서," 관광연구, 제26권, 제4호, 2017, pp.375-397.
- [18] Sand, G. and A. D. Miyazaki,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alesperson Burnout and Burnout Components," Psychology & Marketing, 17(1), 2000, pp. 13-26.
- [19] Schaufeli, W. B. and Bakker, A. B,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 2004, pp. 293-315.
- [20] Cherniss, C, "Professional Burnou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1980.
- [21] 한국재난정보학회,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만족도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0권, 제4호, 2014, pp.549-559.
- [22] 정영심,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전은영,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환자군의 MMPI-2 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4] Beck, A.T,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6.
- [25] 배점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6] 김윤정, 배정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모형구축,"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제4호, 2010, pp. 282-291.
- [27] 이준영, 최종혁, 황현국, 서영은, "강원지역 소방공무원에서 직무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간

- 의 관련성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 불안의학회지, 제10권, 제2호, 2014, pp.151-156.
- [28] 김성완, 이무석, “우울 기분과 의복행동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6호, 1999, pp.1245-1253.
- [29] 박병준, “불안과 철학상담 - 불행을 넘어서는 ‘치유의 행복학’의 관점에서 -”, 철학논집, 제46권, 2016, pp. 9-39.
- [30] 이진, “수학불안 요인의 변화 추세와 수학 연상 단어의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31] 이옥주, “불안 및 동기에 따른 정보처리 학습기술의 피드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32] 최은희, “아동 학대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3] 전은희, “예술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 분석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4] 허송지, 김자영, 장희진, 고혜영, 박수이, “대인관계 발달 단계에 따른 온라인기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를 중심으로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2012, pp. 75-89.
- [35] 정인아,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련 스트레스에 따른 대인관계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6] 김명화, “자기침묵, 대인관계, 우울의 관계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7] Heider,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Row, 1964.
- [38] Leary, T., “Internati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7.
- [39] 조은정, 이기학,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3), 2004, pp.583-595.
- [40] 배은경, 김성완, 김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45권, 제1호, 2017, pp. 63-89.
- [41] 이정삼, “외근형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2] 김혜은, 박경, 박유미, “노인의 스트레스 사건, 정서경험, 우울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연구, 제12권, 제1호, 2012.
- [43] 한인영, 구승신, “군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적 취약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2012, pp. 314-322.
- [44] 송은영, 하은혜,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제8권, 제1호, 2008, pp. 41-56.
- [45] 강민지, 김광웅,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16권, 제1호, 2008, pp. 87-101.
- [46] 고유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8권, 제1호, 2016, pp. 105-138.
- [47] 이현정, 장희순,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제14권, 제1호, 2014,

pp. 39-59.

- [48] 배미향, 조영아,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제15권, 제5호, 2014, pp. 1849-1870.
- [49] 한수경, 정남운,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손상의 매개효과,” 人間理解, 제35권, 제1호, 2014, pp. 149-168.

■ 저자소개 ■



이 서 빈  
(Lee Seobin)

2018년 3월~현재  
김포시법원 협의이혼 상담사  
(가족상담, 부부상담, PTSD)  
2018년 3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2014년 8월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석사)  
관심분야: 가족상담, 부부상담, 이미지치료  
E-mail : art1327@naver.com



변 상 해  
(Byun Sanghea)

2018년 3월~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이사장)  
2007년 3월 백석대학교 대학원 상담학박사  
(가족상담전공)  
2006년 3월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전공)  
관심분야: 정치학, 사회복지, 가족상담  
E-mail : jm9004@svu.ac.kr

논문접수일: 2018년 03월 02일  
수정일: 2018년 03월 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14일